

2021. 2. 1

‘21.1 월 역대 최대규모 발행 속 가산금리 하락

자본시장부 (3705-6129)

- [시장동향] 연초부터 중국, 한국,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대규모 달러채 발행이 이어졌으며, 아시아 지역 채권 가산금리는 대체로 축소
 - 조지아 주 결선투표에서의 민주당 승리로 미 국채금리(10년)가 1%를 상회하고 경기 반등에 대한 낙관적 전망 등으로 일드커브가 경사화
 - 미 국채금리(1월말, '20년말대비), 2년 0.11%(-1bp), 5년 0.42%(+6bp), 10년 1.07%(+15bp)
 - 벤치마크 금리의 일드커브 경사화는 장기물 크레딧 스프레드의 평탄화로 이어지는 분위기. 한편 미 재무부의 현금보유(연준 TGA계정)가 \$1.6조를 상회하면서 Goldman Sachs, Jefferies, UBS 등은 향후 3개월간 미 장기국채 발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
 - 아시아 크레딧물 가산금리는 IG는 축소된 반면 HY는 확대되었고, 한국은 큰 폭 축소
 - Bloomberg Barclays Asia USD IG -7bp, HY +13bp 등
 - '21년 1월 亞 달러채(ex-japan) 발행은 \$580억, 미국 IG \$1,275억, 유럽 IG €782억
 - 한국물 중에는 현대캐피탈 아메리카가(\$27억) 금년 처음으로 발행원도우를 열었고, 인도네시아(Baa2/BBB)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달러채(\$30억)를 발행
 - S&P, 금년 글로벌 ESG 채권 \$7 천억 발행 전망(이중그린본드 '20년\$2.7천억→'21년\$4천억)
 - 중국 HY 채권들은 발행금액 대비 약 5~10배에 이르는 투자자를 모집하고 Barings, Wellington 등 유럽 투자자들의 참여도 활발한 모습
 - 5년 기준, USD/EUR basis swap은 1bp 축소된 -11.6bp, USD/AUD와 USD/JPY도 각각 0bp와 3bp 축소된 8.9bp, -33.1bp

〈표 1〉 한국계 가산금리

	발행액	만기	'20년말	1/4일	1/29일
외평채'30	6.25	9/16/2030	32	32	24
외평채'48	5	9/20/2048	58	58	53
수출입은행'30	5	9/21/2030	54	54	52
산업은행'26	5	7/19/2026	-	38	36
석유공사'30	10	10/5/2030	68	70	55
국민은행'30(후순위)	10	11/4/2030	122	121	114

* 자료: KCIF 등. \$억, bp

〈표 2〉 亞 주요국 및 한국계 CDS

	'20년말	1/4일	1/29일
한국	22	22	25
일본	15	15	15
중국	28	28	32
	NIC	Books	IPG-FPG
US IG	-0.8	3.0x	25.2
EUR IG	0.4	3.6x	11.6

* 월평균



KCIF

■ [주요이슈]

- 1/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: 미국-멕시코간 장벽건설 중단, 파리협약 및 WHO 재가입 등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, \$1.9조 규모의 경기부양책 실행 의지
- 1월 FOMC, 테이퍼링 시기상조 발언 : 별다른 정책변화는 없었으며, 올해 물가 상승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, 테이퍼링은 시장과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
 - 주요 IB 및 시장 참가자들은 대체로 테이퍼링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예상. 테이퍼링 조건인 'substantial further progress'를 실업률 4.5~5%, 근원 PCE 1.8~1.9% 도달로 해석할 경우 테이퍼링은 '22년에 시작 가능(Goldman Sachs)
 - 미국채 금리는 1/28일 장중 한때 일시적으로 1%를 하회한 후 다시 반등
- 1월 신흥국 차입 최고 기록 : 1/27일까지 총 \$1,152.3억을 조달하면서 종전 월간 최대치(19.1월, \$1,127.8억)를 경신(FT)
 - 통상 1월에 발행이 활발하기는 하지만 금년은 ▲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차입 수요가 많았으며 ▲연초 미국채 매도세가 금리 추가 상승에 앞선 선조달 수요를 자극시킨 점이 발행을 가속화시킨 요인으로 작용
- 홍콩 그린본드 발행 : 5년, 10년, 30년 만기 3개 tranche로 총 \$25억 발행에 성공
 - 5년, IPG UST+ 50bp → FPG +22.5bp(쿠폰 0.625%), \$10억
 - 10년, IPG UST+ 60bp → FPG +37.5bp(쿠폰 1.375%), \$10억
 - 30년, IPG UST+ 90bp → FPG +62.5bp(쿠폰 2.375%), \$5억
 - 투자자비중은 아시아 65%, 유럽 20%, 미국 15% 등이며 5배 이상 수요 접수
 - 홍콩은 '19년에 이어 금번 추가 발행으로 아시아에서 그린본드 시장의 선두주자로 자리 매김. 투자자들의 그린본드에 대한 수요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(IFR 등)

